맛있고, 간편하고!… "봄 소풍 기쁨을 두배로"

나들이 위한 '피크닉 메뉴' 인기

본격적인 봄을 맞아 캠핑이나 봄 맞이 소풍을 떠나는 나들이족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푸짐한 피크닉 메뉴가 주목을 받는다. 야외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는 한식도시락부터, 치킨, 김밥 등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나들이족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들을 선보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크닉 메뉴로 단연 인기 아이템은 치킨이다. 치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야외 먹거리다.

bhc는 나들이 메뉴로 '뿌링클'과 '갈비레오'를 제시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 간장의 짭조름한 맛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호를 맞출 수 있다. '뿌링클'은 치킨 위에 블루치즈, 체다치즈, 양파, 마늘이 함유된 매직 시즈닝을 뿌린 제품이다. '갈비레오'는 bhc가 직접 개발한 소스로, 갈비구이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서가치킨은 매운 누들떡볶이와 치킨의 케미를 완성시켰다. 치킨버거, 치킨랩, 치킨 브루스케타의 소스와 함께 매운, 아주매운, 갈릭, 겨자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가치킨은 100% 국내산 신선육(닭고기/순살)을 사용하며, 모든 메뉴를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해 맛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다.

떡볶이전문점 걸작떡볶이는 떡볶이와 치킨을 결합한 치떡 세트로 야외 나들이족의 입맛을 잡았다. 후라이드부터 레몬크림새우치킨, 깐풍치킨, 양념치킨 등 메뉴도 다양하다. 걸작떡볶이는 또 국물닭볶이, 부대떡볶이 등 색다른 메뉴도 갖추고 있다.

치킨에 이어 김밥도 피크닉의 대표 메뉴다. 김가네의 '김가네 김밥'은 우엉, 당근, 지단, 시금치, 어묵, 햄, 맛살, 단무지 등 8가지 재료를 두툼하게 만 즉석김밥으로, 사각 포장 용기에 정갈하게 담아 테이크아웃 고객들에게 인기다. 이 외에도 체다치즈김밥, 멸추김밥, 버섯불고기김밥, 새우롤김밥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김밥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도시락 메뉴도 있다. 나들이 고객에 맞춰 포장 용기를 마련해두고 있다.

정성만김밥은 숯불향 가득한 고기를 넣은 김밥이 장점이다. 여기에 아이와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브리또를 추가해 봄철 색다른 입맛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겹살도 야외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다. 삼겹살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마스터통삼겹은 잘 구워진 삼겹살, 목살, 석쇠불고기 등과 찌개, 채소, 반찬, 밥 등을 깔끔하게 포장해 준다. 본사 직영 공장에서 220도로 초벌 훈연돼 매장에 공급되고, 매장에서는 1300도 직화로 2~3분 내 조리해 제공된다.

야외에서 색다른 메뉴를 즐기기에는 초밥도 괜찮다. 수제초밥이 맛있는 집 스시노백쉐프는 저가형의 기계식 초밥이 아닌 쉐프가 직접 만들어주는 초밥으로 고객의 입맛을 잡고 있다. 특징은 일반적인 간장소스를 찍어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크림으로 만든 생와사비 특제소스로 색다른 매운 맛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크림소스가 더해지면서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독특한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나들이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본도시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봄을 맞아 가족 소풍이나 회사 야유회를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봄엔 본도시락, 단체 도시락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단체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 식혜 증정, 맞춤형 슬리브 제작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본아이에프는 B2B 영업팀을 정식 부서로 신설해 기업제휴나 단체영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문 및 제품 공급 건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나들이 고객 맞춤 김밥·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김가네 김밥. /김가네

치킨

bhc '뿌링클' 소풍메뉴로 제격

서가치킨 떡볶이+치킨 케미 인기

이색메뉴

마스터통삼겹 깔끔한 삼겹정식

스시노백쉐프 풍미 가득한 초밥

본도시락 나들이 이벤트 진행

분식

걸작떡볶이 야외서 즐기는 '치떡'

김가네 정갈한 김밥·도시락메뉴

정성만김밥 숯불김밥·브리또

▶bhc의 '뿌링클'

中企 최대 행사 '중소기업인 대회' 올해도 대통령 자리는 '공석'으로

文 대통령 외교일정으로 불참 전달

2년째 불참…이낙연총리 대신 참석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에도 대통령 없이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대회는 2년째 대통령 불참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대회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소기업계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는 이낙연 총리가 자리를 함께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주말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5월 중순을 전후해선 한반도 문제를 놓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잇따라 치러야한다.

9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전망이다. 당초 6월로 관측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5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도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전에도 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어 과거 대통령이 당연하게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대회 같은 행사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8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인대회는 2009년부터는 아예 대통령 주관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에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해에는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맞으면서 매년 5월 셋째주에 치러지던 중소기업인대회가 연말로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열린 중소기업인대회는 대통령→국무총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각각 참석자가 바뀌면서 결국 장관급 행사로 진행됐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는 등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참석을 학수고대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을 다독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소상공인聯, 고용노동연수원과 소상공인 노동법 교육 '맞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인 고용노동연수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사이버 교육 및 노동법 상식 웹툰 제작, 연수원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련 의식 향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이 고용노동연수원 전운배 원장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까사미아, 가정의 달 맞이 '가족선물전'

까사미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1일 밝혔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사진), '헤링본 4인 테이블', '소마 식기 시리즈', '노아 키즈룸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는 천연 가죽과 스틸 다리를 조합한 모던한 디자인이 장점이다. 등받이와 머리받이 각도 조절, 회전이 가능하다. 수동 리클라이너인 이 제품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마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선물로 꼽힌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는 까사미아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오는 8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까사미아의 '헤링본 4인 테이블'은 집 안에서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다.

헤링본 4인 테이블은 까사미아의 대표 인기상품으로 복고풍 빈티지 디자인의 트렌디한 다이닝 컬렉션으로 고객에게 꾸준히 인기가 높다. 헤링본 패턴을 테이블 상판에 살려 편안함과 아늑함을 집안에 담을 수 있다.

5월 정기행사 기간 동안 '노아', '앤디', '블레어' 키즈룸 시리즈의 침대와 책상을 동시에 구매하면 드림 클라우드 매트를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이대목동병원 치과 주민 위한 건강강좌 개최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치과가 오는 14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강서·양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골다공증 환자 및 유방암 수술 후 뼈주사 환자에서의 치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김선종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사진)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유방암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악골괴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 신청없이 무료로 참석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파로돈탁스·센소다인 치약 세트를 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청년창업가 육성"… '위 스쿨 3기' 발대식

코웨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코웨이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인 '코웨이 Wi School(위 스쿨) 3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코웨이 위 스쿨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보유한 사업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30여 개 청년 창업팀이 포함된 이번 3기에는 환경가전 및 뷰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창업 아이템 공모전과 창업 전문가들의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코웨이 이해선 대표를 포함해 코웨이 임직원들이 전문 멘토링도 실시한다.

이해선 대표는 발대식 후 열린 창업 교육에서 "창업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며 "코웨이 위 스쿨은 회사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나눠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오는 7월21일 청년 창업가들이 약 3개월 동안 발전시켜 온 비즈니스 아이템 발표를 갖고 심사를 거쳐 우수자들에게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의 스마트 환경가전 청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위 스쿨(Wi School) 3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